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5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16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17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9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성화 해설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이 이콘에는 초대교회의 두 기동인 베드로(왼쪽)와 바오로 사도가 표현되었다.

두 사도는 하느님 안에서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여 친교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하느님에 대한 굳은 신앙을 바탕으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였다.

황금색 배경은 두 사도가 천상의 진리를 선포하며 이미 그 영광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상징한다. (정오모 신부, 복음을 담은 성화)

복음 묵상

본디 하늘은 숭상의 대상이고 땅은 겸허함의 상징으로 이해되어 왔지요. 하늘을 우러러 감히 따져 묻지 못하며 땅 위에서는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꼴꼴이 쳐드는 일을 금기시해 왔지요. 그럼에도 오늘 복음은 하늘이 내려왔고 땅이 솟아오르는 천지개벽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맞닿을 수 없는 하늘과 땅이 마주 보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작 두세 사람이 모인 땅의 뜻이 하늘에 닿아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천지개벽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이 전하는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타이르는 것은, 탓을 하고 비판하는 데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마저 함께 안고 가지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합니다. 땅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땅을 디디고 사는 모든 이를 형제로 생각하는 것, 그 형제의 아픔과 실수를 제 것으로 알고 함께 아파하고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이 말하는 교회는 거룩하고 흠 없는 이들의 고상한 모임이 아닙니다. 어찌 저런 인간이 성당에 나올까 싶어 혀를 끌끌 차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형제, 자매라고 불러야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는 곳이 마태오 복음의 교회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심정으로 하늘만 쳐다보는 일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그 ‘감히’라는 생각과 시선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긴 땅의 사람들에게 되돌리는 일, 그것이 천지개벽의 일이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하늘과 맞닿아 거룩해지는 일은 우리의 편협한 잣대로 만들어 놓은 자칭 ‘거룩함’이라는 우상을 부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박병규 요한 보스코 신부)

순교자 성월

한국 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고 있다. 순교란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치는 행위이다. 순교자들은 하느님과 하늘 나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지키고자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를 받아들였다. 이 9월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순교 성인 103위를 비롯하여 순교 복자 124위 등 수많은 순교자의 굳센 믿음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때이다.

한국 교회의 순교자 성월은 1925년 로마에서 거행된 ‘조선 순교자 79위 시복식’이 계기가 되었다. 한국 교회는 이듬해부터 9월 26일을 ‘한국 치명 복자 79위 첨례(축일)’로 지냈는데, 이날이 기해박해(1839년)와 병오박해(1846년) 때 순교한 79위 복자 가운데 가장 많은 이가 순교한 날이기 때문이다. 1968년에는 병인박해(1866년)의 순교자 24위가 시복되었다. 1984년 5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한하여 이들 103위 복자를 시성하였다. 또한 2014년 8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찾아, 순교자들 가운데 103위 성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순교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지역에서 현양되던 124위를 시복하였다.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복자 성월’을 선포하지는 않았으나 1925년의 79위 시복 이후로 복자들을 현양하고 공경하는 신심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9월 한 달을 복자 성월로 지내게 되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984년 103위의 시성에 맞추어 복자 성월을 ‘순교자 성월’로 바꾸고, 9월 20일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경축하고 있다.

순교자들은 평소 하느님을 체험하며 살았기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 오늘날은 피를 흘리며 신앙을 증언하는 시대가 아니지만, 선조들의 순교 영성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는가?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 내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그 첫걸음일 것이다.



〈바오로딸콘텐츠〉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 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 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 교우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 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나게 하시고



〈바오로딸콘텐츠〉

“코로나19 백신은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 치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과 사랑의 덕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대유행은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과 세상을 지배하는 커다란 불평등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었으며, 파괴적인 전파의 과정에서 커다란 불평등과 차별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 세계를 무릎 꿇게 만든, 작지만 끔찍한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회적 불의, 기회의 불평등, 소외 및 가장 약한 이들에 대한 보호의 결핍과 같은 커다란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중적 치료 대응에 있어서,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195항 참조).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 선택이 아닙니다. 물론 이념적 선택도, 정당의 선택도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 일반알현 교리

교육을 시작하면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구절을 통해 이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이 가난한 이가 되셨습니다. 우리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때문에 복음의 중심, 예수님 선포의 중심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셨지만,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사람들과 같아지셨습니다. 특권의 삶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필리 2,6-7 참조). 종이 되시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겸손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으며,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마태 5,3; 루카 6,20; 「복음의 기쁨」, 197항 참조). 병든 이들과 가난한 이들 그리고 소외된 이들 가운데 계셨으며, 그들에게 하느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44항 참조).

그리고 그리스도는 당시의 율법에 따라 불결한 사람들로 간주됐던 병든 이들과 나병 환자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자주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이들과 가까이 계시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가난한 이들, 보잘것없는 이들, 병든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소외된 이들, 잊혀진 이들, 굶주리고 헐벗은 이들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마태 25,31-36; 『가톨릭교회 교리서』, 2443항 참조). 우리는 우리 모두가 심판 받게 될 유명한 기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태오 복음 25 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정통성의 핵심 기준입니다(갈라 2,10; 『복음의 기쁨』, 195항 참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이러한 우선적 사랑이 소수를 위한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전체의 사명이라고 성 요한 바오로2 세 교황님이 말씀하셨습니다(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42항 참조). “모든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는 가난한 이들의 해방과 진보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복음의 기쁨』, 187항).

믿음, 소망, 사랑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단순히 지원이나 원조의 차원을 넘어(『복음의 기쁨』, 198항 참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이러한 우선적 선택으로 재촉합니다. 이는 실제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 걷고,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잘 아는 가난한 이들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도록 해야 하고, 가난한 이들의 구원 체험과 지혜와 창의성에 우리 자신이 “전염”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복음의 기쁨』, 198항 참조). 가난한 이들과의 나눔은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하는 병든 사회

구조가 있다면, 우리는 병든 사회 구조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복음의 기쁨』, 195항 참조). 여기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세상 끝까지 다다르고, 변방까지 다다르고, 실존적 경계에 도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요한 13,1 참조)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변방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당신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2코린 8,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중심을 둔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길 원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상”에 사회적 불의와 환경 파괴가 포함되어선 안 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하나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거치면서 예전과 동일하게 남을 수 없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든지 혹은 잘 극복하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불의와 환경 파괴를 개선하기 위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뭔가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온전한 발전을 위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원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원조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원조 활동은 중요합니다. 이탈리아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조직 가운데 하나인 자원봉사를 생각해 봅시다. 네, 원조가 그런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원조 제공으로 이끄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는 더 이상 치유책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없는 이윤 창출과 같은 사회의 독이 되고 있습니다(「복음의 기쁨」, 204항 참조). 이러한 유형의 이윤은 일반인에게 이익이 되는 실질적 경제와 분리되어 있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109항 참조). 게다가 때로는 공동의 집(지구)에 가하는 피해에도 무관심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윤리적-사회적 필요인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찬미받으소서」, 158항 참조)은 사람들을,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에 두는 경제를 생각하고 설계하라고 우리를 자극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하면서 바이러스 치료를 계획하라고 권장합니다. 만약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코로나 19 백신 접종의 우선권이 주어진다면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백신이 특정한 나라의 소유가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면 매우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모든 경제 원조, 곧 대부분의 공적 자금이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공동선이나 피조물의 보호에 기여하는 산업을 규제하는데 집중하지 않는다면, 추문(스캔들)이 될 것입니다(「찬미받으소서」, 158항 참조). 이러한 것들은 어떤 산업을 도와줄 것인지를 택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곧,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공동선에 기여하고, 피조물의 보호에 기여하는 산업을 택하는** 것입니다. 4가지

기준입니다.

빈곤층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된다면, 우리는 그 세상을 바꿔야합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사랑의 의사이시고, 육체적, 사회적, 적 치유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요한 5,6-9 참조),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처럼, 이제 우리도 **작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을 치유하고, 크고 가시적인 사회적 불의로 인한 전염병을 치유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하느님 사랑에서 시작해 변방이 중심이 되고, 끝씨의 자리가 첫째의 자리가 되길 제안합니다. 우리가 심판 받게 될 기준을 잊지 맙시다. 바로 **마태오 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전염병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실천합시다. 희망의 닳을 내리고 믿음으로 마련된 이러한 구체적인 사랑에서 시작하면 보다 건강한 세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현 세상의 필요에 부응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

★아래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 가족이나 같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오거나, 다녀온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2주 동안)
- ▶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관이나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2주 동안)

• 주일 미사를 자제해야 하는 경우

- ▶ 노약자 및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이 등 면역에 취약한 사람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링톤 교구의 모든 신자들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요일과 의무의 날에 미사에 참석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성당 입장시 준수 사항

-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미사 참여자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6FT)**를 준수해야 합니다.
- ▶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99.5°F 이상 입장 불가)



• 성당 안에서 미사 거행 시 준수 사항

-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6FT 간격 표시된 자리**에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습니다.
- ▶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성체를 모실 때만 잠깐 벗습니다.)
- ▶ 성경과 성가집, 기도문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 합니다.
- ▶ 봉헌이나 영성체 시에도 일정한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 영성체 전에 사제가 미리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영성체 시에는 마음속으로 ‘아멘’을 합니다.**)
-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합니다.
- ▶ 미사가 끝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 있게 **즉시 성당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다음 미사를 위해 방역과 환기가 필요합니다.)



• 일반 준수사항

-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6FT), 손 씻기 및 소독의 생활화
- ▶ 성당 건물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합니다.
- ▶ 봉사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시 즉시 성당에 알려야 합니다.



1 주일 미사 안내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미사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사당 100명 선착순**으로 신청 받습니다.
- 주일 오전 10시 미사 초과 신청으로 **주일 오전 8시 미사를 재개** 합니다.
- 보다 안전한 미사를 위해서 적절하게 분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성당 사무실(703-968-30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평일 미사 안내

- **평일 미사 시간**
 -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 수요일 : 오전 11시
 -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 평일 미사 참여자가 지켜야 할 수칙 또한 주일 미사와 동일합니다.
 - * **마스크 착용** * **거리 두기**
 - * **참여자 명단 작성** * **발열 체크** * **손 소독**
- 보다 안전하게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묵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4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많은 교우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5 유아세례 안내

-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정된 날에 합동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별적**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합니다.
- **유아세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3주 주간: 예레 50-52, 1베드 1-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8월 30일(연중 제22주일)

주일헌금	\$1,678.00
교무금	\$6,310.00
교무금(크레딧카드)	\$3,950.00
감사헌금	\$1,280.00
2차헌금	\$0
합계	\$13,218.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9월 9일(수) 오전 6:15-6:45 | 9월 12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황창연 신부님의 성서특강 ‘이집트문명으로 간 아브라함’**
-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9월 10일(목) 오후 5:00-6:00
9월 11일(금) 저녁 8:00-9:00
9월 13일(일) 오전 6:00-7:00



- **특집: 황창연 신부의 행복 특강 - 변화와 도전 2**
- **걸어서 만나는 신앙의 숨결 - 걸어서 만나는 신앙 한티 성지**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정맹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희(마리아),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고필순(젼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례(안나), 이영민 (다윗), 한양수 (스테파노)